

07 의정마당

대책은?

Q. (조희종 의원) 현재 겹재교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또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연결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38필지 중 22필지, 건물 24개 동 중 22개동이 보상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토지와 건물의 보상은 언제 완료가 되는지?

A. (건설교통국장) 겹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량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결도로는 전체 지상건축물 24개 동 중 22개 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보상은 3차 구간 토지 3필지, 건물 2개 동, 영업4개소 등 39억 원과 4차 구간 나대지 13필지, 확대보상 9건 등 41억 원으로 총 8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 예산 사정상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확보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0억 원 정도 적게 반영되어 보상 및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편성 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 목표 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숙 의원(중화1, 2동)

▶ 보도, 공원 등에 설치된 펜스를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Q. (김영숙 의원) 공원, 보도 등에 설치된 펜스가 지역별로 다르고 또한 종류도 다양각색이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소가 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디자인수도 서울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펜스설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도, 공원 등에 설치된 펜스의 보수 또는 신규 설치 시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려 조형물처럼 도시디자인 심사를 받거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재질과 형식으로 제작, 설치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원, 보도의 펜스 등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설치 실태 및 사후관리 측면에 문제점은 없는지?

A. (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에는 총 12km에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구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에 있어 형식, 규격,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새로 설치할 경우 반드시 디자인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디자인거리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에는 가로변에 띠 녹지 설치, 기존 펜스 철거 등을 통하여 보행자 방호울타리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수거 및 관리방안은?

Q. (김영숙 의원) 세계 각국의 폐의약품 회수 처리실태를 보면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약국이 회수하고 의약품 도매상 등 별도 업체가 운반을 담당하며 최종적으로 소각처리되고 있다. 우리 구의 연도별 수거 폐기량을 보면 2008년도 273kg, 2009년도 1,405kg, 2010년도 2,300kg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특히 액체종류의 폐의약품은 별도 폐기처리 과정 없이 생활쓰레기 또는 하수구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체에도 치명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어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상당수 주민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A. (보건소장) 우리 구는 가정 내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불용의약품의 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사업의 홍보는 관내 약국과 동사무소에 안내포스터 부착, 중랑소식지 게재, 캠페인, 생활폐기물 처리안내 리플릿 배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주민이 다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 시범으로 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약국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러한 수거함과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다.



이윤재 의원(목1, 2동)

▶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진입에 많은 불편이 있어 둔치로 내려가는 육교 입구에 자전거 접근로를 만들어줄 의향은 있는지?

Q. (이윤재 의원)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랑천 제방 위에서 육교를 통하여 내려오게 되는데, 이 길에서 크고 작은 접촉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주민의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육교 사이에 수풀이 우거진 공간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우회시켜 도로의 일관성을 이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둔치로 접근하기 위해 중랑천 제방으로 오르는 길은 모두 가파른 목재 계단으로 되어 있다. 사회 보장구 보급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는 오르내릴 수 없다. 가파른 목재 계단 중앙에 판자를 덧대어서라도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끌고 밀며 오를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중화2동에서 묵동 아이파크까지의 구간에는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전무하다. 둔치로의 접근을 위한 육교 입구 맞은편에 완만한 경사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있는지?

A. (건설교통국장)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보도육교에서 내려서는 입구와 인접하여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교통안전 노면 표시인 횡단보도 표시, 이미지하프 도색, 천천히 글자 문안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둔치 중화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물가로 우회하는 방안, 육교 하부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이용객의 수, 자전거 흐름 등 여러 가지 이용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중화둔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랑천둔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보도육교근처에 경사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제방 일부를 훼손해야 하고 경사로 1개소 설치비용이 약 1억원이 소요된다. 중랑천제방 훼손 및 한정된 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경사로 추가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전거 이용주민이 많은 지점에 경사로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

